



**문재인 대통령, 시·도지사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문 대통령,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뒷줄 왼쪽부터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 광주시, 자율주행 특수목적 차량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 이용섭 시장,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서 요청

광주시는 24일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의 혁신적인 성장을 이룰 최적의 조건을 활용해 '자율주행 특수목적차량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율주행차 특수목적차량 공공서비스 실증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설명한 뒤 하반기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는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노면청소, 폐기물 수거, 전신주 고소작업, 도로상황 점검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특수목적차량의 자율주행차 운영을 실증하는 것이다"며 "도로교통법, 도로법, 개인정보처리법 등 18개 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광주는 자동차 생산능력 2위, 특장차분야 부가가치 창출액 1위, 광주형자동차 공장 추진, 친환경 자동차부품인증센터 유치 등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의 혁신적인 성장을 이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8월 중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이행절차인 사업 공고, 중소기업입부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 전남도,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 설치

### 경영안정자금지원

전남도가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전남도는 24일 오후 '긴급 일본 수출기업인 간담회'를 열어 수출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신고센터 설치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처가 주재하고,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남도중소기업진흥

원 등 유관기관과 일본 수출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피해기업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역 수출기업의 피해신고를 접수해 사례별로 관련 부서에 연계해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할 계획이다.

수출 지원기관에서는 시장개척단 파견,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통해 동남아, 중남미로 수출선을 다변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수출기업에 전남도 긴급경

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연계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출기업 대표들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본 참여원 선거 결과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병태 부지사는 "일본 무역보복으로 지역 내 일본 수출기업인의 근심이 클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환경 추이를 파악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들어 추가적인 대응책을 계속 발굴하고 정부의 신박방·신남방 정책과 연계해 수출선 다변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전남 'e-모빌리티' 등 규제자유특구 지정해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직무대리 정재경)은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남 'e-모빌리티'를 비롯한 전국 7곳에서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전남 지역은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정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25년까지 기업수 7배(14개→100개), 고용 10배(200명→2,000명), 매출 10배(400억원→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번 지정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휠체어의 자전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1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농업용 동력원반차 승차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해 함께 작업하는 농작업 현장을 반영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의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e-모빌리티 분야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정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해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특구 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도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추가 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 동구, 대학원생들 아이디어로 관광콘텐츠 개발

광주 동구가 지역대학과 함께 관내 관광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동구는 지난 3월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과 동구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과제 발걸을 합의하고 지난 5월부터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23일 구청3층 상황실에서 대학원생들로 이뤄진 팀별 발표가 이뤄졌다.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련부서 담당자, 발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발표에서는 4개월 간 동구 관광의 현주소에 대한 이해와 관광자원 분석을 바탕으로 테마별 관광콘텐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 서구, 정부혁신 유공 국무총리상 수상

광주 서구가 지난 23일 정부서용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정부혁신평가 우수기관 포상 수여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정부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행안부에서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 서구는 청춘발산공작소 내 일(job) 향해 날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한 안전한 원룸방외 안전환경 조성 등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우수 사례를 발굴·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남구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우수기관 선정

광주 남구는 올해 상반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보부세 3,8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남구 남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집행 목표달성 실적과 일자리 사업 및 국고보조 SOC 사업에 대한 집행 실적 등 평가지표에 따라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에서 남구는 행안부에서 신속집행 목표 달성 기준치로 제시한 재정 집행률 55.5%(목표액 대비 집행액) 이상인 67%를 조기 집행하고, 국고보조 SOC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 북구, 승강기 사고 발생 대비 민·관 합동훈련

광주 북구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

북구는 "25일 오후 4시부터 북구청 복지누리동에서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대응 능력 향상과 이용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2019 승강기 사고대응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승강기 민·관 합동훈련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승강기 갑툭튀 사고 및 고장 발생 시 이용자 안전 확보와 인명구조 등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은 북부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등 민·관이 참여해 주민과 함께 실전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진행은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하던 승강기가 정전 발생 후 층간 멈춤 및 이용자 2명이 갇힌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사고발생, 구조요청, 현장출동, 구조 긴급환자 이송, 승강기 운행복구 순으로 진행된다.

## 광산구, 인증지역서점서 책도 읽고 책방도 살리고

23일 광주 광산구가 인증지역서점 20개소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현판 설치해줬다. 인증지역서점은 동네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구민이 집 가까운 책방에서 책·인문학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광산구가 인증·홍보하는 제도.

우선, 광산구는 이번에 인증 받은 서점을 등 행정복지센터, 구립도서관, 학교, 공공기관 등에 알리고, 구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킹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를 원하는 인증지역서점에 찾아가는 인문학 강연을 개최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동네서점에는 경영 컨설팅도 지원해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임형택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중사지와 더불어 신문산업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9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연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2016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약속해주세요.